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초기노동시장 진입 후 일자리 이동성과 임금 변동 분석

김민규¹⁾ · 임진주²⁾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여성의 초기노동시장 진입 후 일자리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년 여성의 고용현황과 일자리 이동을 살펴본 결과, 청년 여성 노동 시장 참가율은 전문대학 졸업자에 비해 고교 및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는 고졸인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각하며,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는 수도권 잔류자에 비해 주거비 등 문제로 학교 졸업 후 초기 경력개발과정에서 일자리 횟수 변동 및 근무일 비중 조정과 같은 일자리 탐색에 제약을 받아 자신의 경력개발경로 설계에 있어 최적화된 루트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년실업대책은 주거비용 절감 등 생활안정 대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패널회귀 분석결과, 청년 여성의 시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도권 거주여부, 졸업 이후 연차, 일자리 횟수, 근무일 비중, 학력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여성의 졸업 이후 초기 3년간 동안 일자리 이동을 통한 임금 상승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중 청년의 직업적 탐색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청년 여성, 초기노동시장, 일자리 이동성

I. 서론

비수도권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은 일자리의 양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수도권 졸업생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류장수, 2003).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학 졸업자의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등 동남권에서 대졸 청년이 서울·경기도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6년 8.0%에서 2009년 22.4%로 크게 늘었다(이승은, 2015.12.21.). 비수도권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 외에도 고교 졸업 이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진학하거나, 곧바로 고교 졸업 후 수도권으로 취업하려는 수요를 포함하면 구직 기회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확대 등 목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기존 연구에서 노동이동(labor mobility)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산업간 이동(inter-industry mobility), 직종간 이동(occupational mobility), 직업간 이동(job mobility) 및 기업간 이동(inter-firm mobility)외에도 지역간 이주(migration)가 하나의 주요한 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전재식, 2002).

청년층의 초기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지역 간 이주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횡단면 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간 이주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종단면 분석을 통해 지역간 이주 대상별 일자리 이동성의 특징을 파악한다면 청년의 일자리 탐색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의 경험과 근무기간의 조절을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많은 일자리 탐색(job shopping)을 수행하는 청년의 구직 및 취업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임금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일자리 변동이 임금 상승의 1/3 정도를 설명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Topel & Ward, 1992; Alon. etal, 2005 재인용). 특히, Topel & Ward(1992)는 고교 졸업 후 초기 10년간의 경력은 남성의 전체 생애의 임금 상승의 66%를 설명하며, 이 기간의 일자리 변동이 생애전체의 일자리 변동과 일치한다고 했다. 한편 여성 청년층 실직자의 상당수는 결혼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거나,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정기간 일하다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다는 경우가 많아 남성에 비해 더욱 취약한 편이며(김태홍, 2009: 임연 외 2010), 여성 청년과 저학력자 청년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반정호 외, 2005)에서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한 청년 여성이 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생과 비교하여 졸업 후 일자리 횟수, 근무기간, 임금 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2004년부터 2014년 조사 자료이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한 청년 여성의 일자리 이동성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일자리 이동성은 고졸, 전문대졸 및 대졸 여성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비수도권 학생의 취업 등 목적으로 위해 수도권 거주하는 경우 비교대상인 수도권에 계속 잔류하는 이들과 비수도권에 잔류하는 청년 여성간의 일자리 이동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학력에 따라 이들 일자리 이동성은 임금과 갖는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검토

일자리 이동과 임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로 스티글러(G.J,Stigler)에 의해 처음 소개된 탐색이론(search theory)에 의하면, 직업을 탐색함에 있어서 탐색기간이 길어질수록, 탐색을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탐색비용은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전재식, 2002). 지방대생은 서울이나 수도권출신 대졸자에 비해 해당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기회가 낮고 제시되는 일자리의 질 역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최종학교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다(박성재, 2005). 한편, 전통적인 인적자본이론에 의해서도 노동의 지역이동은 지역 간 인적자본 배분 향상을 통해 해당 주체의 장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라는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bodenhofer 1967; Greenwood 1997; 김정년, 2010 재인용).

이와 대조적으로 일자리 이동과 임금이 관련성이 없거나 부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주장으로 이병희(2002)의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학력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과잉교육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에서 잦은 이직을 경험한 것이라는 의견과(박정주 2011에서 재인용),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잦은 이직은 향후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견해도 있다(이병희, 2002; 박정주 2011에서 재인용). 이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겪게되는 미취업은 잠재적인 노동수요자에게 나쁜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이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Ellwood, 1982; 전재식, 2002 재인용).

많은 연구에서 청년패널을 활용하여 청년층에 연구대상을 집중시키고, 청년계층의 고용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김주엽·박성재, 2004; 김성환·최바울, 2004; 김준영·전용석, 2004 등),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전히 청년 취업자에 초점을 맞추어 비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을 넘나드는 고용형태 전환의 요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분석대상도 일정 학력 수준 이상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또는 여성 청년의 일자리 이동 전환 행태를 분석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 중 고등학교(2004년 당시) 여성 코호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범위는 1차년도에서 11차년도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고등학교 코호트만 분석한데에는 11차년도(2014년)까지 데이터가 공개된 상황에서 중학생 코호트의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졸업자가 DB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차년도(2004)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3 학생 남녀 4,000명 중 남성들 중 군 입대를 한 경우에는 졸업시점이 변동폭이 크고 상실되는 데이터가 상당하므로 남성 2,222명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여성 1,778명을 표본집단으로 했다. 해당 설문 조사가 실시된 이후 조사대상자로 탈락되지 않고 현재 거주지를 밝힌 1,339명을 선별했다.

본 연구는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를 3개의 학력별로 구분하였다. 각 학교 졸업자(또는 상급단

계 중퇴자, 재학자 포함)를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각각 두었으며, 고교, 전문대학 졸업, 대학 졸업(각 20, 22, 23)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두었다. 그러나 고등학생 코호트의 경우 각 학력별 졸업 이후 6차년도 데이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여성들은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 전문대학 졸업자 중 여성은 8년, 대학 졸업자 중 여성은 6년이 각각 지난 시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각 학력별 졸업 이후 6년차 까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는 시급에 로그값을 취한 값이며, 독립변수는 수도권 거주 여부, 일자리 이동, 및 학력 변수 등이 포함되었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종속변수	임금	시급에 로그값을 취함
설명변수	지역	수도권=1, 비수도권=2
	졸업 후 연차	T1~T3=0, T4~T5=1
	근무일 비중	연간 전체 12월 중 실제로 일한 개월수를 나눈 값
	일자리 횟수	연간 현재 일자리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를 가진 횟수
	학력	고졸 이상=1, 전문대졸 이상=2, 대졸 이상=3

3.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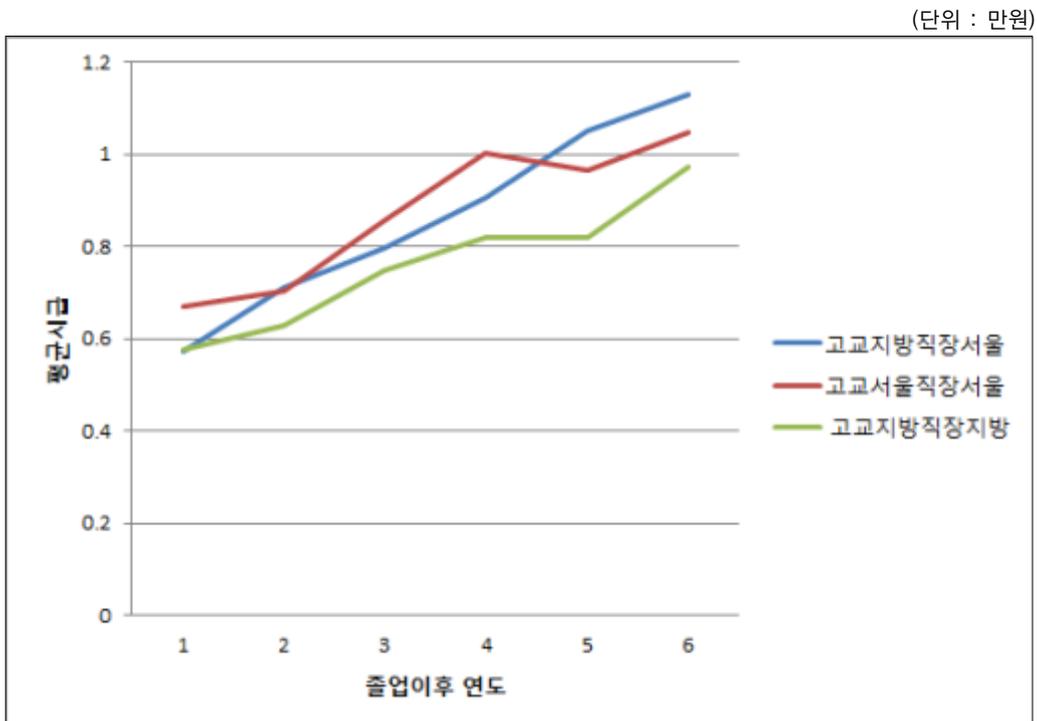
첫째, 기술통계를 적용하여 고교 소재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잔류했는지에 대한 지역이동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역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독립변수, 즉, 지역, 졸업 후 연차, 근무일 비중, 일자리 횟수, 학력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고 지역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독립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이러한 기초분석을 토대로 패널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이동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이동에 따른 임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개체의 고유한 개체 특성 및 조사 대상 시점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한 후 관심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활용했으며 STAT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해석

다음 [그림 1]에서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 수도권 잔류자 및 비수도권 잔류자의 연간 평균 시급을 각각 제시하였다.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와 비수도권 잔류자의 학교 졸업 첫해 시급은 모두 5,000원 후반에서 시작하고, 수도권 잔류자의 경우 6,000원 후반에서 시작하였다. 6년 후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의 임금은 1만 1000원 대를 넘어섰으며, 수도권 잔류자는 1만원대, 비수도권 잔류자는 9천원 후반대까지 상승했다.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와 비수도권 잔류자의 임금은 약 2,000원 정도 차이가 벌어졌다.

이들 집단간 차이가 숙련도에 따라 증가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력차에 따른 임금 차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청년여성의 졸업 이후 평균 시급 변화

다음 <표 1>은 학교 졸업 후 6년 동안의 학력 수준에 따른 이들 집단간의 노동참여율을 나타냈다. 고졸 집단에서의 근무일 비중이 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 집단에 비해 분포범위가 넓게 퍼져있다. 그리고 전문대졸이 대졸에 비해 분포범위가 더 좁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 중 고졸 학력자는 학교 졸업 후 6년간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30% 초반에 머물렀으나, 이들의 전문대졸 및 대졸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은 60%를 상회했다. 이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잔류자 모두 고졸 학력에 비해 전문대졸 또는 대졸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약20%p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간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 횟수는 1.2~1.3개이며, 집단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으나, 대졸 학력자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에 비해 수도권 잔류자의 연간 일자리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교 졸업 후 초기 6년간의 일 경험 추적

		Total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	수도권 잔류	비수도권 잔류
고졸	근무일 비중	35.4 (41.7)	33.1 (40.5)	41.5 (41.6)	40.2 (44.4)
	일자리 횟수	1.3	1.3	1.3	1.3
	N	53	9	20	24
전문대졸	근무일 비중	63.1 (42.4)	64.4 (42)	63.1 (42.5)	64.9 (42.4)
	일자리 횟수	1.2	1.3	1.2	1.2
	N	569	155	123	291
대졸	근무일 비중	57.3 (43.4)	61.5 (42.3)	58.6 (43.4)	57.5 (43.6)
	일자리 횟수	1.2	1	1.3	1.2
	N	393	67	115	211

주1. 수도권 고교 출신자의 비수도권이주자 324명을 제외한 1,015명을 대상

주2. 근무일 비중은 연간 전체 12월 중 실제로 일한 개월수를 나눈 값

주3. 일자리 횟수는 연간 현재 일자리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를 가진 횟수

졸업 후 처음 3개년 동안 고졸자의 한 개 이상의 직업 경험 비율은 40% 미만으로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의 경우 수도권 잔류자 55% 및 비수도권 잔류자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또 전문대졸자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는 61%로 수도권 잔류자 61% 및 비수도권 잔류자 63%에 비해 유사하거나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대졸자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는 46%로 수도권 잔류자 51% 및 비수도권 잔류자 47%에 비해 유사하거나 다소 낮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는 대부분의 학력 수준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잔류자에 비해 초기경력형성기에 한 개 이상의 직업 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의 경우 비교 대상 집단에 비해 일자리 이동 횟수를 제약하는 요인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졸업 후 4차~6차년도에 해당되는 후기 3개년이 앞선 초기 3개년에 비해 고졸자가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경험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되었다. 반면 전문대졸과 대졸자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대체로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고졸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장이동성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 거주자는 다른 두 비교집단에 비해 초기 3개년(231명)에 비해 후기 3개년(165명)으로 조사대상자 수가 29%p(66명) 감소했다(수도권 잔류자 30% 증가, 비수도권 잔류자 9.2% 감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의 감소 현상은 가속화 되며, 수도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다시 비수도권으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연간 1개 이상의 일자리 횟수가 초기 3개년에 비해 후기 3개년에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청년 여성의 학교 졸업 후 초기 6년간의 학력별 시기별 일자리 이동 횟수

(단위 : %)

	1~3차년도			4~6차년도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	수도권 잔류	비수도권 잔류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	수도권 잔류	비수도권 잔류
고졸						
0	61.5%	45.6%	48.4%	44.4%	36.0%	34.9%
1-2	30.8%	36.8%	41.1%	48.1%	42.0%	50.8%
3+	7.7%	17.6%	10.5%	7.4%	22.0%	14.3%
N	9	20	24	8	22	23
전문대졸						
0	39.0%	39.1%	36.8%	43.0%	36.1%	36.9%
1-2	41.3%	44.0%	43.7%	33.6%	44.6%	44.9%
3+	19.8%	16.8%	19.4%	23.3%	19.3%	18.2%
N	155	123	291	75	101	263
대졸						
0	54.2%	50.7%	47.1%	55.5%	49.3%	47.3%
1-2	40.6%	38.2%	42.4%	42.4%	39.3%	40.7%
3+	5.2%	11.1%	10.6%	2.0%	11.3%	12.0%
N	67	115	211	82	211	198

주1. 수도권 고교 출신자의 비수도권이주자 324명을 제외한 1,015명을 대상

주2. 일자리 횟수는 연간 현재 일자리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를 가진 횟수

청년 여성의 지역 이동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가 발생함을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보았다. 다음 <표 4>는 청년 여성의 졸업 후 처음 3개년 동안 졸업 후 초기(T1~T3) 및 후기 3개년(T4~T5) 각각의 시기에 일자리 횟수에 따른 시급을 학력별로 분류했다. 또한 주어진 기간 중에 근무일 비중을 50%이상과 75%이상을 구분하여 시급을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졸업 이후 연차가 쌓일수록 시급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일자리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를 가진 횟수가 많아질수록 시급은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조기에 확보한 경우 일자리 탐색(job shopping)하는 형태로 여러 직장을 경험해볼 필요성은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청년 여성의 고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여성의 처음 3개년(T1~T3) 전체 고졸 집단의 시급 변화는 조사기간 중 노동시장 참여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후기 3개년(T1~T4) 기간 동안 노동시장 참여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급이 조금씩 높아졌다. 전문대 및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비중에 따른 임금 변화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표 4〉 청년 여성의 학력별 학교 졸업 후 초기 6년간의 시기별 학력별 시급 분포

(단위 : 만원)

T1~T3	T4~T6	고졸			전문대졸			대졸		
		ALL	LFA >50%	LFA >75%	ALL	LFA >50%	LFA >75%	ALL	LFA >50%	LFA >75%
0		0.50	0.52	0.54	0.68	0.68	0.68	0.92	0.92	0.91
1-2		0.51	0.52	0.54	0.60	0.60	0.59	0.78	0.78	0.82
3+		0.77	0.47	-	0.61	0.65	0.62	0.79	0.79	1.03
	0	0.72	0.83	0.85	0.87	0.88	0.89	1.13	1.17	1.16
	1-2	0.69	0.71	0.92	0.79	0.80	0.81	1.06	1.06	1.09
	3+	0.54	0.53	0.39	0.80	0.77	0.79	1.05	1.10	1.06
N		53	21	5	569	493	265	393	322	159

주1. 수도권 고교 출신자의 비수도권이주자 324명을 제외한 1,015명 중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일자리 경험이 있어 임금을 받은 671 명을 대상으로 분석

주2. LFA는 전체 조사대상 기간에서 실제 일한 개월수를 나눈 것임. LFA>50%은 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LFA>75는 이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만 선별하여 회귀분석한 모형임.

다음 <표 5>는 전체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일자리 이동과 관련된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여 임금 상승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시급을 8% 정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비중, 일자리 횟수, 학력을 통제한 모델 2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의 임금 격차를 7.8%에서 5.6%으로 2.2%p 유의미하게 떨어뜨려 놓았다. 이 모델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비수도권 고졸자에 비해 수도권 거주 고졸은 시급을 6%, 전문대졸은 10%, 그리고 대졸은 24% 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비해 일자리 횟수와 졸업 후 연차 변수를 넣어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졸업 후 연차 초기 3년(T1~T3)은 일자리 횟수가 1단위 늘어날 때 마다 시급이 11.4% 줄어드나, 졸업 후 연차가 후기 3년(T4~T6)에는 오히려 일자리 횟수가 1단위 늘어날 때 마다 시급이 5% 증가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졸업 이후 초기에는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일자리 횟수를 늘리는 형태로 다양한 직장 경력을 쌓는 것을 선호하나, 이후 4년차 부터는 일자리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시급 변화에 민감하게 일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또한 조절효과를 반영한 이 모델에서 청년 여성의 학력 격차로 인한 임금 차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도 소폭 감소시켰다. 한편, 근무일 비중이 임금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0.1~0.4% 이내로 제한되는 아주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표 5〉 전체 청년 집단 대상 회귀분석 결과

	(1)	(2)	(3)	(4)	(5)
VARIABLES			ALL	LFA>50%	LFA>75%
수도권	0.0784*** (0.0175)	0.0563*** (0.0170)	0.0518*** (0.0183)	0.0530*** (0.0195)	0.0517** (0.0250)
일자리 횟수*졸업 후 연차(T4~T6)			0.166*** (0.0207)	0.190*** (0.0254)	0.115*** (0.0399)
근무일 비중		0.00208*** (0.000236)	0.00181*** (0.000248)	0.00208*** (0.000281)	0.00375*** (0.000431)
일자리 횟수		-0.0878*** (0.0122)	-0.114*** (0.0141)	-0.136*** (0.0161)	-0.148*** (0.0235)
학력 전문대졸		0.0430** (0.0205)	0.0416* (0.0213)	0.0467** (0.0234)	-0.0114 (0.0296)
대출		0.184*** (0.0282)	0.171*** (0.0283)	0.186*** (0.0300)	0.0998*** (0.0383)
Constant	-0.348*** (0.00934)	-0.548*** (0.0243)	-0.555*** (0.0253)	-0.561*** (0.0293)	-0.645*** (0.0450)
Observations	5,196	5,194	4,554	3,541	1,932
R-squared	0.005	0.072	0.081	0.101	0.113
N	1,365	1,365	1,356	914	472

주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종속변수는 시간급에 로그를 취한 값

주3. LFA는 전체 조사대상 기간에서 실제 일한 개월수를 나눈 것임. LFA>50%은 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LFA>75는 이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만 선별하여 회귀분석한 모형임.

다음 <표 6>은 지역 이동 집단별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 거주자는 졸업 후 초기 일자리 횟수 변동 폭이 1단계 증가할 때 마다 임금이 14% 상승하며, 수도권 잔류는 22%, 비수도권 잔류자는 16%상승했다. 수도권 잔류자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해당 지역에 일자리의 다양성 등 선택의 폭이 넓은 점과 주거 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일자리 횟수를 증가시켜 임금상승에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졸업 후 연차가 4년차 이상인 경우 일자리 횟수와 졸업 후 연차 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집단 모두 초기 3개년에 비해 일자리 횟수 증대를 통한 임금 상승폭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일자리 이동에 관해 널리 알려진 사실인 평균 일자리 변동 폭은 나이 또는 경험, 특히 현재 재직 기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바꿀 때 청년의 임금은 상승하나 그 상승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Bartel and Borjas, 1981; Mincer, 1986; Topel & Ward, 1992 재인용)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다만,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잔류 집단의 임금 상승폭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 이동 집단별 학력별 임금 격차를 살펴봤을 때,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 거주자는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이 유의수준을 벗어나지만 7.5% 정도, 대졸은 23% 임금을 더 받았다. 이에 비해 수도권 잔류자의 경우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과 대졸은 각각 24%, 53%, 비수도권 잔류자는 각각 22%, 47%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이동 유형에 따라 학력별로 임금 상승에 차이가 났으며, 특히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 거주자는 같은 수도권 잔류자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표 6〉 지역 이동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1)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	(2) 수도권 잔류	(3) 비수도권 잔류
일자리 획득*졸업 후 연차(T4~T6)	0.143*** (0.0554)	0.217*** (0.0346)	0.162*** (0.0274)
근무일 비중	0.00378*** (0.000535)	0.00212*** (0.000420)	0.00175*** (0.000330)
일자리 획득	-0.136*** (0.0328)	-0.187*** (0.0261)	-0.144*** (0.0187)
학력 전문대졸	-0.0746 (0.0940)	0.237*** (0.0620)	0.215*** (0.0545)
대졸	0.230** (0.0965)	0.533*** (0.0615)	0.465*** (0.0560)
Constant	-0.658***	-0.753***	-0.813***
Observations	763	1,231	2,026
N	364	462	698

주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종속변수는 시간급에 로그를 취한 값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2004년부터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 수도권 잔류 및 비수도권 잔류하는 청년 여성의 임금 변화를 살펴보고, 일자리 이동 특징에 따라서 임금 변화 폭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한 청년 여성 고용 대책에 관한 정책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청년 여성의 고용현황과 일자리 이동을 살펴본 결과, 청년 여성 노동 시장 참가율을 살펴보면, 고졸 35.4%, 전문대졸 63.1%, 대졸 이상 57.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청(2013)에서 제시하는 2013년 기준 청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고졸 52.8%, 전문대졸 65.5%, 대졸 이상 64.0%에 비

해 본 연구의 결과치가 고졸과 대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구직단념자 제외 등 측정대상과 방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졸업 이후 연차를 거둠에 따라 상실되는 데이터를 감안하더라도 전문대학 졸업자에 비해 고교 및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 여성 취업자의 특성을 지역 이동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의 시급은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비수도권 잔류자보다는 수도권 잔류자와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의 수도권 이탈 비율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높아짐을 감안할 때 상실효과로 인한 임금효과일 수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는 비교집단에 비해 일자리 이동과 관련하여 학력별로 상반되는 특징이 나타났는데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수도권 잔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일 비중이 적고, 대졸자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 거주자가 근무일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는 고졸인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은 고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계층에 대한 실업정책과 연계하거나 포함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반정호 외, 2005). 또한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거주자는 수도권 잔류자에 비해 주거비 등 문제로 학교 졸업 후 초기 경력개발과정에서 일자리 횟수 변동 및 근무일 비중 조정과 같은 일자리 탐색에 제약을 받아 자신의 경력개발경로 설계에 있어 최적화된 루트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기회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대책은 주거비용 절감 등 생활안정 대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패널회귀 분석결과, 청년 여성의 시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도권 거주여부, 졸업 이후 연차, 일자리 횟수, 근무일 비중, 학력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여성의 졸업 이후 초기 3년간 동안 일자리 이동을 통한 임금 상승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중 청년의 직업적 탐색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학력별로 고졸자의 임금이 최저 임금에 머물고 있으며, 근무일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확연히 낮다는 점은 고교 직업교육이 보다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효과성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정년(2010) 지역 산업수요와 지역이동 : 전문고 졸업생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33(2), 53~89.
- 김성환·최바울. 2003.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성과분석”.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 김주섭·박성재. 2003.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직업교육훈련 효과”,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 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 김준영·전용성. 2003. “청년층 취업자의 노동이동과 노동이동성과”.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 김태홍(2009) 최근 여성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류장수(2003)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6(1), 1~25.
- 박성재(2005)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4), 65~99.
- 박정주(2011) 청년여성 임금근로자의 첫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교육연구 30(2), 213~229.
- 반정호, 김경희, 김경휘. (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73~103.
- 이병희(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1~18.
- 이승은(2012) 지방을 외면한 국가와 기업,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 부대신문(2015.12.21., 18:23)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
- 임언, 노일경, 정혜령 (2010) 청년 여성 취업자의 직무불일치 지속여부와 임금변화 및 직장이동과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9(2), 225~243.
- 전재식(2002) 청년층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5(1), 29~51.
- Bartel, Ann, and George Borjas, “Wage Growth and Job Turnover: An Empirical Analysis,” Studies in Labor Markets, Sherwin Rosen,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NBER, 1982).
- Bodenhofer, Hans-Joachim The mobility of Labor and the Theory of Human Capital. Journal of Human Resources 2(4), 431~448.
- Greenwood, Michael J.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ed Countries.” In Rosenzweig, M.R. and Stark, O. (Ed.),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1b(1997): 647
- Mincer, Jacob, “Wage Changes and Job Changes”, Research in Labor Economics, Volume 8, part A (Greenwich, CT: JAI Press, 1986), pp. 171~91.
- Sigal Alon, Marta Tienda (2005) Job Mobility and Early Career Wage Growth of White,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Women. Social science Quarterly 86, 1196~1217.
- Topel, Robert h., & Michael P. Ward(1992). Job Mobili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Quartely Journal of Economics 107(2), 439~79.

❖ Abstract ❖

The Analysis of the Early Career Job Mobility and Wage Growth of Young Women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Kim Min-kyoo, Kun Joo Lim(KRIVE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nd how young women's job mobility influences from young women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spect of th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f young women, graduates of high-schools and universities are less likely active compared to graduates of colleges. Some governmental policies for stabilizing these women's employment situation are required. Second, young women who came from non-capital regions had severe struggles to adapt labour market in capital regions and they also have a difficulty to maximize their opportunity for job mobility because they couldn't afford many limitations such as housing fee in the long term basis. Third, after analysing panel regressions, we recognize that the determines of wage growth for young women are whether they reside in capital region or not, early years after their graduation, the number of job changes, job durations, schooling. Especially, first three years after graduation is more positively related the number of job changes. The government might need to more concerns for facilitating their job shopping efforts in terms of the process of career development.

Key words: young women, early labour market, job mobility

